

기획논문

다원커우[大汶口]문화 이차장 의례와 ‘조상 되기’

몸의 가분적 재구성을 통한 인격성 변형 연구

임상택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고고학 전공

archman@pusan.ac.kr

국문초록

죽음은 개인의 생애를 마감하는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격성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고고학에서는 장례를 주로 사회구조나 위계의 반영으로 이해해 왔으며, 죽음 이후 이루어지는 몸의 해체와 재구성이 지닌 사회적·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다. 본고는 중국 산둥지역 다원커우[大汶口]문화의 천출묘와 이차장묘를 대상으로 몸의 분리와 재구성 방식, 부장 양상 및 시공간적 분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몸의 가분성(dividuality)과 관계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천출 과정에서는 두개골과 사지골이 선택적으로 수습되고, 이차장에서는 이들 뼈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배열되어 새로운 신체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신체를 공동체의 관계망 속에서 재구성하는 의례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차장묘는 일차장과 달리 부장품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장례의 목적과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보여 준다. 다인 합장을 중심으로 한 이차장은 개별 생애의 기억보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와 집합적 인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초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결국 다원커우문화의 천출과 이차장은 죽은 개인의 몸을 해체하고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존재, 곧 공동체의 조상으로 전환시키는 의례였으며, 몸의 가분성과 관계성을 바탕으로 인격성이 변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다원커우[大汶口]문화, 천출묘, 이차장묘, 가분성, 인격성 변형

투고일 2026. 6. 29. 심사일 2026. 8. 5. 게재 확정일 2026. 8. 27.

Special Issue

Secondary Burial Rituals and “Becoming Ancestors” in Dawenkou Culture: Transformation of Personhood Through the Dividual Reconfiguration of the Body

Lim, Sangtaek

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archman@pusan.ac.kr

Abstract

Death marks not only the end of an individual's biological life, but also the transformation of personhood into a new social identity. However, archaeological studies have largely interpreted mortuary practices in terms of social hierarchy, status, and political organization, paying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the symbolic implications of bodily manipulation after death. This study examines exhumation and secondary burial practices of Dawenkou culture in Shandong, China, focusing on the disassembly and reconstruction of the human body as a means of exploring dividuality and relational personhood. By integrating evidence on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these burials, patterns of skeletal selection and rearrangement, and associated grave good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econdary burial was not a simple disposal of human remains, but a deliberat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deceased within a new social framework. Skulls and major limb bones were selectively collected during exhumation and recombined into diverse arrangements, while grave goods were scarce. Notably, Guxingbei drinking vessels, which commonly symbolized food and alcohol in primary burials, were virtually absent in secondary burials, indicating that these rituals served fundamentally different purposes from those of ordinary interments. The predominance of multiple secondary burials further suggests that the emphasis shifted from the memory of individual lives to the creation of collective identities embedded within broader social relationships. These patterns indicate that bodily fragmentation did not signify the destruction of personhood; instead, it was an essential stage in the transformation of personhood. Therefore, secondary burial in Dawenkou culture can be understood as a ritual process through which the deceased became ancestors by dismantling and reassembling the body, revealing that personhood was conceived as relational, divisible, and continuously reconstituted through mortuary practice.

Keywords: Dawenkou culture, exhumation graves, secondary burials, dividuality, transformation of personhood

Received June 29, 2026 Reviewed August 5, 2026 Accepted August 27, 2026

I. 머리말

중요한 통과의례 단계 중 하나인 장례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과 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창이 된다. 고고학에서 죽음과 장례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덤의 규모와 입지, 부장품의 양과 질 등을 통한 망자의 사회적 지위 파악, 장례를 행한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 표현 등의 차원에서 사회구조 판단이라는 특정 영역에 치우쳐 왔다. 그러나, 죽음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존재론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인격이 이 과정에서 재구성된다는 생각이나,¹ 무덤과 망자의 몸을 통해 표상된 범주나 이미지가 그의 생전 정체성의 총체적 반영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 간의 협상을 거쳐 전략적 또는 관습적으로 선택되고 가공되어 변형된 것이라는 이해,² 신체나 물건의 파편은 사람·사물·장소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물질적 연결고리이며 분절된 장례는 이러한 관계가 신체를 통해 재구성되는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 등에서 볼 수 있듯이,³ 죽음과 장례 행위를 단순히 망자의 사회적 지위의 총체적 반영이나 후손의 지위 획득이라는 차원만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분명해 보인다. 본고는 죽음 이후 장례 행위에서 보이는 몸의 처리 방식과 장법의 다양성 등을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대상은 이차장 행위가 유행하는 중국 산둥성의 대표적 고고문화인 다원커우[大汶口]문화 묘장들이다.

다원커우문화는 양사오[仰韶]문화나 홍산[紅山]문화와 병행하는 중국 산둥 지역 신석기문화로, 관곽제의 발달, 규(鬻)와 고병배(高柄杯) 등 다양하고 정교한

※ 이 논문은 202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5-C08).

- 1 C. Fowler, “Identities in Transformation,” in Liv Nilsson Stutz & Sarah Tarlow(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1~19.
- 2 우정연, 「남한 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 형식 재검토」, 『한국고고학보』 2022-4(2022), 779~780쪽; 우정연,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과 몸의 가분성(dividuality)」, 『한국학』 173(2023), 10~11쪽; 우정연, 「남한 지역 청동기시대 인골과 무덤을 통해 본 젠더와 삶의 재생산」, 『한국상고사학보』 125(2024), 56~59쪽; 하대룡, 「고총기(高塚期) 백제와 신라 엘리트의 몸과 장례 비교: 적석총과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한국학』 173(2023), 121쪽.
- 3 J. Chapman & B. Gaydarska,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Sorting through the Pieces,” *Stratum Plus*, Vol. 2(2015), pp. 86~87, 102~104.

토기문화의 발달, 중원 지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룡산(龍山)문화의 토대 등으로 잘 알려져 있고,⁴ 최근에는 자오자(焦家), 강상(崗上) 유적과 같은 중만기의 대형 성지가 조사되면서 중원과 구별되는 독자적 실체로서의 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⁵ 특히, 다원커우문화는 다른 고고문화에 비해 무덤 유적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편년 및 장송의례와 관련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갖추고 있다. 이른 단계를 중심으로 이차장이 발달하여 신체 및 사물의 가분성, 장례를 통한 인격성⁶의 변형과 같은 본고의 구체적 문제의식을 검토하는 데 적합하다. 다원커우문화에서 이차장은 노중(魯中) 및 노북(魯北) 지구에서 비교적 유행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초기 단계에 유행하고, 중기 이후로는 현격히 감소한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중 지구 초기 단계 유적, 특히 899기의 무덤이 조사된 왕인(王因) 유적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기타 사례들은 보조적으로 살펴본다.

II. 다원커우문화의 천출묘(遷出墓)와 이차장묘

1. 다원커우문화 천출묘와 이차장묘

다원커우문화 무덤은 수혈토광묘가 기본이다. 중기 이후 목질 장구(葬具) 사

-
- 4 임상택, 「영속성과 위계 협상의 장, 다원커우문화(大汶口文化) 부장의례」, 『한국고고학보』 2025-3(2025), 693~724쪽.
 - 5 임상택, 「중국 신석기시대 조사와 연구의 최신 동향: 최근 5년간(2017~2021) “全國10大考古新發現” 선정 신석기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박물관연구논집』 28(2022), 105~143쪽.
 - 6 본고에서 ‘인격성’은 personhood의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personhood는 본고와 관련한 기존 논의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구성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된다. personhood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조건 혹은 상태로 정의되며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고정되지 않고 생성되며 변화하는 과정적 상태이다. 문화적으로도 가변적이며 분할 가능하다. identity가 특정 사회적 범주에 대한 귀속과 관련된다면, personhood는 인격이 어떤 존재로 구성되는가 하는 존재론적 조건과 관련된다. C. Fowler, “Relational Personhood Revisited,”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Vol. 26, No. 3(2016), pp. 397~412.
 - 7 다원커우문화 편년은 대표적인 樂豐實의 분기안을 따랐다. 樂豐實, 「大汶口文化的分期与類型」, 『海岱地區考古研究』(濟南: 山东大学出版社, 1997).

용이 증가해 목관이나 목곽이 채용되는 사례가 증가한다. 단인장이 압도적이고 양신직지 중심이다. 일부 합장묘가 존재하는데, 남성 합장이 많고, 여성 합장, 남녀 합장, 성인 합장, 성인+아동 합장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무덤은 성인 피장자 중심이며 우촌[五村], 류리징[六里井], 위츠스[尉迟寺] 등 일부 유적에서만 성인 비율이 절반 이하이다. 많은 유적들에서 성인 중 남성 비율이 높은 양상이 나타난다. 천출묘와 이차장은 주로 초기 단계에 노중 및 노북 지역에서 유행한다. 천출묘란 이차장 인골을 집골(集骨)하기 위해 파헤쳐진 무덤을 말한다. 따라서 천출묘와 이차장묘는 일종의 세트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천출묘와 이차장묘의 시공간적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⁸ 표에 보듯이, 노중 지구의 초기를 대표하는 왕인 유적에서 특히 천출묘와 이차장묘가 두드러진다. 노북 지구 역시 다수의 사례가 보이는데, 특히 교동반도의 초기 유적인 베이첸[北阡] 유적에서는 모든 무덤이 천출묘와 이차장묘에 해당한다. 기타 지역은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만기 유적 중심인 노동남[魯東南] 지구와 회북[淮北] 지역은 사례가 매우 드물다. 유적에서 확인된 총 인골 수량 대비 이차장묘 인골 수가 30%를 넘는 경우는 베이첸(92%), 첸부샤(前埠下, 56%), 왕인(33%) 세 사례에 불과하다. 다원커우가 10%이고 나머지 유적들은 모두 5% 이하이다. 다원커우문화 이차장은 단인장(41기)보다 합장(101기)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천출장은 단인장(48기)이 합장(15기)보다 훨씬 많다.⁹ 결국, 개별 단인장 무덤의 피장자들을 모아 이차 합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성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단인 이차장은 모두 성인 개체이며 남성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특징들을 통해 이차장이 갖는 사회적 의미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8 이 자료는 아래의 논문 및 각 보고서를 기초로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余杰, 『大汶口文化墓葬研究』(武漢: 武漢大學博士学位论文, 2019).

9 余杰, 위의 책(2019), 164~168쪽.

표1-다원커우문화 천출묘와 이차장묘 자료 집성

(단위: 기)

지역	유적	무덤 총 수	천출묘	이차장묘	시기
魯中	王因	899	38	98	조기
	大汶口	179	7	1	조기
	六里井	20			중~만기
	周河	5			중기
	董大城	1			만기
魯南	野店	89			조~만기
	西夏侯	32			만기
	西公桥	48		1	만기
	建新	105	1?		만기
	岗上	8			중~만기
	西康留	10			만기
	尹家城	1			중기
	南兴埠	4			만기
	天齐庙	10+			만기
	北辛	1			만기
蘇北	劉林	197		3	조기
	大墩子	547		3	조~중기
	花厅	87			중~만기
	梁王城	139	1		만기
魯北	尚庄	17		5	만기
	前埠下	33	7	2	중기
	呈子	12		1	중기
	五村	75	4	3	만기
	傅家	300+	○	○	중~만기
	三里河	66			만기
	后胡营	7	2?		만기
	景芝镇	7		2?	만기
	鲁家口	2			만기
	焦家	207		○	중~만기
	古镇都	15		4	조기, 만기
	北阡	39	15	24	조기
魯東南	大朱家	35			만기

지역	유적	무덤 총 수	천출묘	이차장묘	시기
魯東南	陵阳河	45	1		만기
	杭头	4			만기
	左家王庄	3			만기
	东海峪	3			만기
淮北	付庄	12			만기
	尉迟寺	284			만기
	古台寺	2			만기
	杨堡	6			만기
	段寨	2		1	만기
	周口烟草公司仓库	4		1	만기

주: ○: 존재하지만 기수 파악 불가능. ?: 무인골묘 등 가능성 존재 무덤.

2. 몸의 해체와 재구성 방식

1) 이차장 방식

이차장은 내부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순수 이차장과 일차장+이차장으로 구분될 수 있고 순수 이차장은 단인장과 합장으로 구분된다. 일차장과 이차장이 혼합된 것은 일반적으로 1인의 양신직지 피장자(일차장)와 여러 개체의 이차장 인골이 합장된 것이다. 순수 이차장은 노북, 노중 지구의 조기에 유행하고, 일차장과 이차장의 혼합장은 중기 이후에 노남, 소북 지구에서 주로 나타난다.

2) 몸의 해체와 재구성 방식: 사례 검토

유적 사례는 천출묘와 이차장묘가 주로 확인되는 노중 및 노북 지구 대표 유적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몸의 해체 방식: 천출묘 사례 검토

가. 왕인 유적

왕인 유적은 노중 지구 다원커우문화 조기를 대표하는 무덤 유적이다.¹⁰ 층위

1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山東王因』(北京: 科學出版社, 2000).

에 따라 전·중·후엽으로 구분된다. 유적에서 확인된 899기의 무덤 중 시기별 천출묘와 이차장묘 수량은 다음 <표2>와 같다. 천출묘는 전체 무덤 중 약 4.3%, 이차장묘는 약 10.9%로 이차장묘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지만, 전체적으로 일차장묘에 비하면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장자 수를 살펴보면 899기 무덤에서 총 1,285명의 인골이 확인되었는데, 천출묘 57명(4.4%), 이차장묘 423명(33%)으로,¹¹ 천출묘 인골 수는 무덤 수와 같은 비율이지만, 이차장묘 인골 수는 무덤 수의 3배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인골 수의 30%를 넘어 이차장이 왕인 묘역에서 매우 중요한 장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차장묘에 다인 합장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전체 무덤군에서 천출묘에 비해 이차장묘가 무덤 수 및 피장자 수가 훨씬 많은 점은 흥미롭다. 이차장묘의 피장자들 중 상당수는 이 무덤군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¹² 이런 현상은 중엽 이후 두드러지며 특히 후엽에 심화된다. 그렇다면 왕인 유적은 개별 취락 단위를 넘어서는 공동체(씨족?) 구성원들의 묘역이 되는 셈이며, 후술하는 이차장묘의 사회적 함의를 고려할 때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³ 여타 유적에서 천출묘는 없고 이차장묘만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량이 적어 이를 왕인 유적처럼 해석하기는 어렵다. 천출장만 확인되고 이차장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역시 무덤 수량 문제로 해석이 어렵다.

왕인 유적에서 몸의 해체 방식을 알 수 있는 천출묘 자료는 총 38기가 확인되었다(전엽 5기, 중엽 16기, 후엽 17기). 이 중 보고된 13기 21구 인골의 세부 사항은 다음 <표3> 및 <그림1>과 같다. 천출묘에 없는 부위는 곧 이차장묘로 옮겨진 부위이다. 따라서, 천골 부위는 후술할 이차장 부위와 연동한다. 보고된 천출묘 양상을 보면,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묘에서 두개골은 반드시 천출되며, 대부분의 묘에서 척추와 늑골은 잔존한다. 골반뼈와 사지뼈는 잔존하기도, 천출되기도

11 余杰, 앞의 책(2019), 53쪽.

12 余杰, 위의 책(2019), 166쪽.

13 민족지 사례를 고려할 때, 기존 무덤을 열어 인골을 수습하는 방식 이외에 풍장이나 초장 등 다른 방식으로 육탈한 후 이차장을 했을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표2-왕인 유적 천출묘 및 이차장묘 수량(괄호 안은 총무덤 수 대비 %)

(단위: 기, %)

	천출묘		이차장묘		계	총무덤 수
	단인장	합장	단인장	합장		
전엽	3(2.5)	2(1.7)	1(0.8)	4(3.3)	10	121
중엽	9(2.4)	7(1.9)	17(4.5)	24(6.4)	57	377
후엽	12(3.0)	5(1.3)	15(3.7)	37(9.2)	69	401
계	24(2.7)	14(1.6)	33(3.7)	65(7.2)	136	899

표3-왕인 유적 주요 천출묘 요약

시기	호수	장법/명	잔존 부위	부장품	비고
전엽	141	합장/2	1호: 척추, 늑골, 골반, 지골 1 2호: 척추, 분골, 좌대퇴골	정 1	육탈 미완으로 1호 인골 천골 시 몸체 이동
	2129	단인장	척추, 늑골, 골반	정 1	
중엽	2460	합장/2	1호: 척추, 늑골, 견갑골, 골반 절반, 양팔 및 손뼈 2호: 척추, 좌견갑골, 늑골, 우측 골반, 대퇴골 1		
	2478	합장/2	1호: 척추, 늑골, 상완골, 손뼈, 꼬리뼈 2호: 척추, 늑골, 지골 1	정 3, 뚜껑 1	1호: 척추 두 동강 2호: 옆드린 상태
	304	단인장	척추 일부, 늑골, 견갑골, 골반		
후엽	317	단인장	쇄골, 척추, 골반, 손발뼈		여성
	2389	단인장	척추, 늑골	고형배 2, 정 4, 분 1, 발 1, 뼈 2	
	2251	단인장	척추, 늑골, 골반, 기타 소편	고형배 1, 발 1, 분 1	
	2423	단인장	척추, 늑골, 골반, 쇄골	뼈 1	
	2594	단인장	척추, 늑골, 골반, 지골	정 7, 배 2, 관 1, 분 1	
	2298	합장/4	1호: 척추, 골반, 좌대퇴골 2호: 요추와 골반 3호: 골반 4호: 척추, 좌측골반, 지골 일부	고형배 3, 정 6, 발 3, 관 1, 석추 1, 방추차 1, 토제팔찌 1, 돼지하악 1	
	2436	합장/2	1호: 척추, 늑골, 골반 일부 2호: 척추, 늑골, 상지골, 골반, 골편		2호: 천골 시 몸체 이동, 옆드린 상태
	2239	합장/2	1호: 척추 일부, 늑골, 골반, 좌상 지골, 우대퇴골 2호: 척추, 골반, 늑골, 견갑골		1호: 척추 두 동강, 골반 분리 등 천골시 이동 2호: 천골 시 이동

도 하지만 골반의 잔존율이 더 높다. 즉, 사지골의 천출 비율이 더 높다. 이는 이차장묘에서 사지골의 비율이 더 높은 것과 연동하는 것이다. 일부 천출 무덤에서는 골반의 절반만 잔존하거나 한쪽 지골만 잔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이차장묘에서 모든 사지골이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과 연동한다. 일부 무덤에서는 요추와 골반만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차장묘에서 상체 부위가 통째로 매장되는 경우와 연동한다. 일부 무덤에서 아직 육탈이 완결되지 않은 시신 부위의 천골을 위해 시신을 뒤집거나 끌어당긴 흔적이 확인된다. 이차장무덤에 비하면 천출묘에서 훨씬 높은 비율로 부장품이 잔존한다. 최대 20점의 부장품이 확인된 경우(왕인 후엽 2298호)도 있다. 부장품은 고행배(觚形杯)와 각종 정(鼎), 분(盆), 발(鉢), 관(罐), 배(杯) 등 토기와 방추차, 마석(磨石), 골비(骨匕) 등 도구, 돼지 하악골이 있다. 후술할 이차장묘에서 고행배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 양상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천출묘는 기본적으로 단인장이 우세하지만, 일부 2인 혹은 4인 합장 등도 확인된다.

나. 다원커우 유적

노궁 지역을 대표하는 다원커우 유적 2, 3차 발굴에서는 조기에 해당하는 총 7기의 천출묘가 보고되었다(2005, 2010, 2015, 2017, 2020호 등.〈그림 2〉참조).¹⁴ 2005호는 성년 남성으로, 좌우 척골과 요골, 손뼈, 우측 정강뼈와 우측 발뼈만 잔존한다. 부장품은 총 104점으로 고행배 10점, 두 18점, 고족배(高足杯) 7건, 정, 발, 분, 호 등 토기 58점, 석부과 석분(石鏞) 각 1점, 양단인기(兩端刃器) 24점, 상아기 손잡이, 비녀, 골촉, 속발기(束髮器), 장아(獐牙) 등 골각기 44점이다. 분, 발, 두 안에 돼지 하악골 혹은 발굽이, 삼족분(三足盆) 안에 소 두개골이 담긴 채 출토되었다. 2015호는 정강뼈(tibia)와 종아리뼈(fibula)만 잔존한다. 부장품은 고행배 1점, 정 2점, 두 2점, 고족배 1점, 고병설(高柄磬) 1점 등 토기 7점과 방추차 1, 황(璜)형 장신구 1점이다. 2017호는 정강뼈와 종아리뼈만 잔존하고 있고 고행배, 두, 황형 장신구 각 1점이 부장되었다. 2020호 역시 정강뼈 이하 부위만 잔존

14 山東省文物管理處·齊南市博物館, 『大汶口』(北京: 文物出版社, 1974); 山東省文物管理處·齊南市博物館, 『大汶口續集』(北京: 科學出版社, 1997).

한다. 고행배 1, 정 2, 삼족발 1, 두 2, 분 2, 관 2, 발 2, 고족배 2, 고병설 1, 권족배(圈足杯) 1, 뚜껑 1 등 토기 16점, 석분 1, 골모(骨矛) 6, 골촉 1, 골추 9, 인기 2, 장아 2, 돼지 하악골 1로 다량의 기물이 부장되었으며 부장 위치는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2010호는 성년 남성으로 두개골과 좌측 손뼈 및 발뼈만 결실되었고 여타 뼈는 보존 상태가 좋다. 경추에 잘린 흔적이 없어 천출한 결과로 보고되었다. 부장품은 없다. 보고된 이상의 사례를 보면 대퇴골 이상의 모든 부위가 천출된 사례가 많고, 두개골과 일부 사지골이 잔존한 사례, 두개골만 천출한 사례가 있다. 왕인 유적에 비교할 때 골반과 늑골을 포함한 상당수의 뼈 부위를 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베이첸 유적

베이첸 유적은 노북 지역 교동반도 남안의 지모시(即墨市)에 위치한 유적이다. 2007년 조사를 통해 주거지, 무덤, 회갱 등과 함께 베이신문화와 다원커우문화 초기 단계의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⁵ 특히, 일차장은 없고 천출묘와 이차장묘, 화장묘만이 확인된 무덤은 여타 유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 주며 교동반도 최초의 사례이다. 천출묘 15기와 이차장묘 24기가 확인되었다.

천출묘는 대부분 단인장이며 남은 골격은 매우 소량이다. 일부는 이차장묘를 다시 천출한 사례도 있다. 28호는 대략 7인 정도가 확인되는데, 두개골 좌편과 사지골, 손가락뼈, 늑골, 쇄골, 골반, 발뼈 등이다. 미성년 1인(7호 인골) 이외에는 모두 장년이고 성별이 확인된 개체는 모두 남성이다. 5~7호 인골은 서로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이차장묘와 천출묘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8점의 부장품(석분, 석추, 석구, 방추차, 토제품, 조개(굴))이 흩어진 채 출토되었다. 50호는 파편화된 소량의 뼈만 출토되어 성별이나 연령은 불명이다. 멧돼지 견치제 장신구 3점(束髮器)과 토기 발 파편 1점이 확인되었다(〈그림 3〉 참조).

15 山東大学历史文化学院考古学系·青岛市文物保护考古研究所·即墨市博物馆, 「山东即墨市北阡遗址2007年发掘简报」, 『考古』第11期(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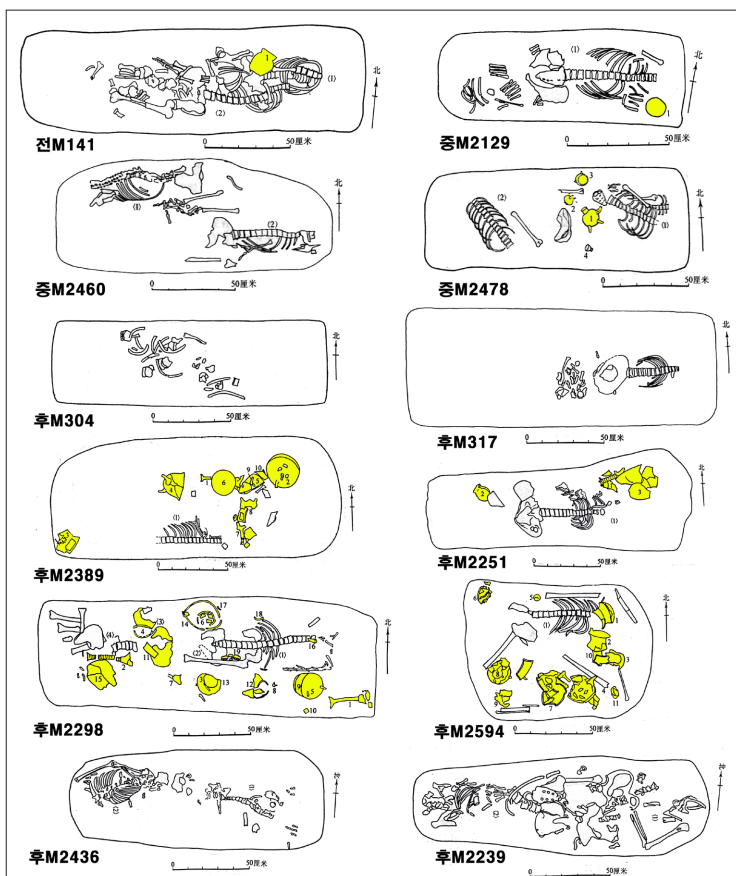


그림1-왕인 유적 천출묘 집성(황색은 부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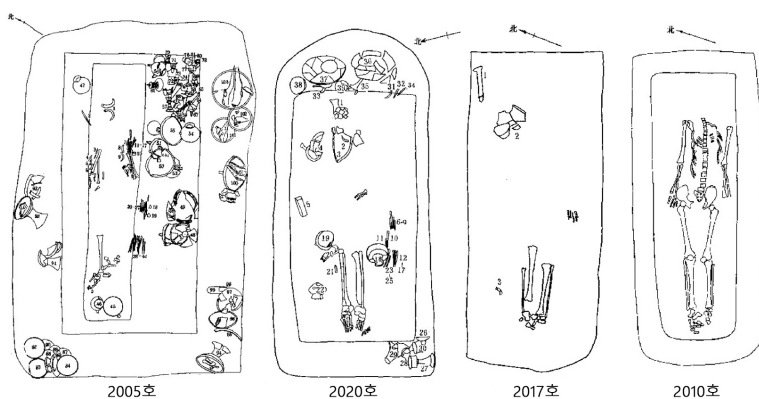


그림2-다원커우 유적 천출묘 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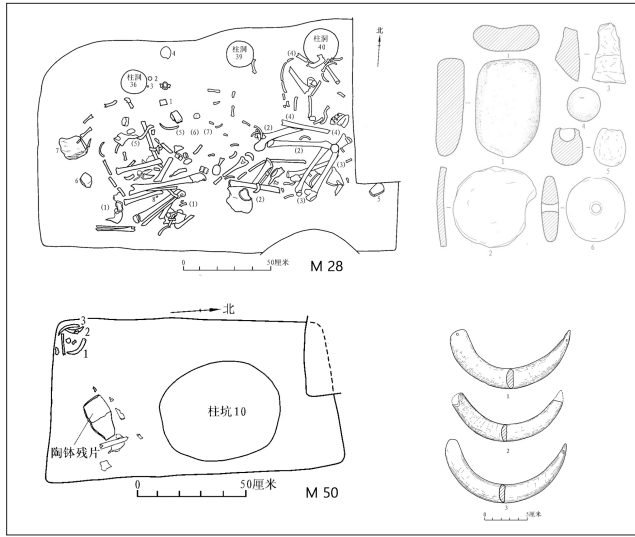


그림3-베이첸 유적 천출묘와 부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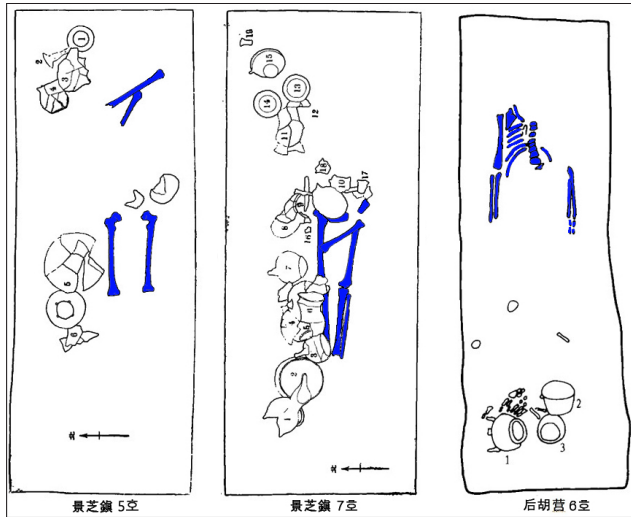


그림4-노북 지역 천출묘 각종(청색은 잔존 부위)

라. 기타 유적

노북의 쉐부샤와 우춘, 허우후잉[后胡营], 징즈진[景芝镇] 유적 등에서도 천출묘 보고가 있지만, 대부분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다(<그림4> 참조). 쉐부샤의

33기 무덤 중 7기는 인골이 확인되지 않았고,¹⁶ 우촌의 75기 무덤 중 4기(17, 31, 33, 51호)는 인골이 없거나 극소량만 잔존해 보고자들은 천출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¹⁷ 만기 허우후잉 유적에서는 4호와 6호가 천장의 가능성이 있다. 보고된 6호는 두개골과 골반, 하지골 등이 결실된 반면 묘광과 기타 부위 뼈는 교란되지 않아 천출묘 가능성이 높다. 정, 관, 발 3점의 토기가 족부에 부장되었다.¹⁸ 만기 징즈전 유적 7기 무덤 중 5호는 두개골을 포함한 상지골 일부, 골반, 정장뼈와 종아리뼈가 없고, 7호는 두개골에서 골반까지의 상체 부위가 없다. 대신 묘광이나 부장품은 그대로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천출묘의 가능성이 높다.¹⁹

(2) 몸의 재구성 방식: 이차장묘 사례 검토

이차장 시 몸의 재구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큰 뼈들, 즉 두개골과 사지뼈, 골반뼈를 중심으로 집골(集骨)하고 이를 재배열하는 방식이다(I 류). 이러한 방식은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재구성 방식이 존재한다. 일부 무덤에서는 손과 발, 척추와 갈비뼈 등이 함께 재매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고자들은 이것이 의도적으로 집골된 것이 아니라 육탈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골이나 살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천출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큰 뼈 이외 뼈들의 수습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첫 번째 방식에 포함시켜 다룬다. 두 번째는 큰 뼈 이외의 척추, 손과 발, 갈비뼈 등 나머지 부위들도 함께 집골하여 재매장하는 방식이다(II 류). 이 경우는 재구성 방식이 첫 번째 방식에 비교해 일목요연하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인골들의 개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뼈의 재구성 방식 이외에 다인 합장의 경우는 각 개체들의 배치 방식에서도 다양성이 관찰된다. 순수 이차장묘는 인골 더미를 두개골 기준 종방향 배치, 횡방향 배치, 종횡 조합 배치로 구분할 수 있다. 혼합 이차장은 앙신직지의 일차장 개

16 余杰, 앞의 책(2019), 104쪽.

17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广饶县博物馆, 「广饶县五村遗址发掘报告」, 『海岱考古』第一辑(济南: 山东大学出版社, 1989).

18 昌潍地区文物组·寿光市博物馆, 「山东寿光市后胡营遗址试掘简报」, 『考古』第9期(2005).

19 王思礼, 「山东安邱景芝镇新石器时代墓葬发掘」, 『考古学报』第4期(1959).

체 측면에 이차장 인골을 배치하는 것이다(<그림5~7> 참조).

• I 류

I 류는 재매장되는 주요 뼈 부위의 조합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두개골+사지골+골반형’이고 두 번째는 ‘두개골+사지골형’이다. 각각 Ia, Ib류로 칭한다. 각류는 다시 재배열 방식(순서)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될 수 있다(<표4> 및 <그림5> 참조). 각류에는 무덤에 따라 척추와 늑골, 손발뼈, 쇄골, 견갑골 등 부위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의도적 천골이 아니라, 천골 시 육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 함께 이동한 것이다. 뼈의 각 부위가 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골반과 대퇴골 관절 부위가 연결된 상태로 매장된다거나 척추와 늑골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하고, 팔뼈와 손뼈, 정강이뼈와 발뼈가 붙은 채 매장되는 사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II류

인골 각 부위를 특별한 규율 없이 산란시킨 것이다. 교동반도 베이첸 유적이 대표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두개골을 아래에 두고 그 위에 각 부위 뼈들이 어지러이 놓여진 상태이다. 주로 사지골이 많지만, 골반, 쇄골, 손발뼈 등 기타 부위도 확인된다. 뼈들이 부러지거나 파편화된 상태인 것들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두개골이 가장 먼저 놓인다는 점은 아래에 볼 왕인 유적과 큰 차이이다. 육탈이 미완된 사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가. 왕인 유적

왕인 유적에서 성인 2인이 포함된 이차장의 합장묘는 동성 합장이 절대적(83%)이다. 3인 이상의 다인 합장 역시 동성 합장이 우세하다. 성별은 남성이 대부분이다. 왕인 유적은 감정된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664명, 여성 303명으로 남성이 두 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차장과 이차장을 포함해 남성의 매장이 우세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첸부사 유적 역시 남성 동성 합장이 많은데, 베이첸 유적은 이성 합장이 절대다수라는 차이점이 있다.

왕인 유적을 보면(<그림6, 7> 참조) 이차장묘의 부장뼈 부위에서 지골은 도면상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하지골은 대퇴골, 경골, 비골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와 일부가 없는 경우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지골 역시 존재하는

표4-왕인 유적 이차장묘 뼈 재구성 방식 분류

유형	재구성 방식	유구	비고
I a 두 개 골 + 사 지 골 + 골 반 형	肢骨+골반+두개골	왕인 전엽 404호 중엽 2230호: 2호 인골 후엽 2362호: 4호 인골(늑골 포함), 5, 6호 인골	지골과 골반 순서 무관, 일부 늑골, 견갑 등 포함
	지골/(골반+두개골)	왕인 전엽 2616호, 2214호: 1호 인골 중엽 2523호: 3호 인골, 2240호: 4, 10호 인골 후엽 2203호	
	(골반/지골)+두개골	왕인 전엽 2549호	
	골반/두개골/지골	왕인 중엽 282호	
	(지골/골반)+두개골	왕인 중엽 2523호: 2호 인골, 2516호 8개체, 2240호: 1, 2, 6, 9, 11~16, 18, 19, 20, 23호 인골	
	(골반+상하지골+수족 골)/두개골	왕인 중엽 2476호, 2230호: 1호 인골	육탈 미완료
	두개골 및 상체, 골반 /하지골	왕인 후엽 2461호: 1, 3호 인골	육탈 미완료
I b 두 개 골 + 사 지 골 형	지골/두개골	왕인 전엽 2214호: 3호 인골 중엽 2230호: 3호 인골	
	지골+두개골	왕인 중엽 251호: 2호 인골, ²⁰ 2517호, 2130호, 2240호: 3, 5, 21호 인골 후엽 359호	
	(늑골/사지골)+두개골	왕인 중엽 2252호	
	두개골 /(지골+척추+늑골)	왕인 전엽 2214호: 2호 인골	
	무질서형	왕인 후엽 2362호(13인), 266호(6인), 243호(24인), 2558호(9인), 2489호	
	두골	왕인 후엽 2461호: 2호 인골	다인장 중 일부

주: ‘재구성 방식’에서 배열 순서 상하 관계는 下 / 上, 병치 관계는 + 기호로 표기. 괄호는 하나의 더미를 이루는 단위를 표시.

20 251호의 1호 인골도 이차장 사례로 보아 2인 이차장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1호 인골 상체는 제 위치에 그대로 배열되어 있고 골반 아래 부위는 호트러진 상태, 두개골은 허리 부위에 놓여 있었다. 보고자들은 부패가 덜 된 상태에서 천출해 이차장한 것으로 보았지만, 두개골이 항상 동향을 하고 있는 나머지 이차장들과 차이가 있고, 이차장이 확실한 2호 인골이 1호 인골 하반신 위에 놓여 있는 점 등을 본다면, 1호와 2호 인골은 별도의 무덤이고 중복된 것으로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천출장의 상황과도 일치한다. 천출장인 전엽 141호는 원래 양인 합장묘였는데 두개골과 상지골 및 일부 하지골은 천출된 상태였지만 2호 인골의 골반뼈와 왼쪽 대퇴골은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 있었고 1호 인골의 상체는 전체적으로 위로 이동된 상태였다. 보고자는 천출 시 아직 육탈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육탈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는 중엽의 2476호 이차장묘에서도 확인된다. 골반과 대퇴골 고관절 부위가 연결된 상태, 아래팔뼈와 손뼈, 정강이뼈와 발뼈가 연결된 상태로 재구성되고 그 위에 두개골을 올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두개골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뼈들은 천출 시 육탈 여부가 수습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닌 듯하다. 육탈되지 않은 부위가 남겨지기도 하지만 통째로 수습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 개체의 인골에서 ‘반드시 대퇴골과 경골 및 비골을 쌍으로 수습해야 한다’거나 ‘골반뼈는 반드시 수습해야 한다’ 등의 일관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단, 두개골은 반드시 수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두개골과 지골이 가장 중요한 천출 부위이고 골반뼈 역시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지는 않은 듯하다.²¹ 이차장묘에서 두개골과 지골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골반뼈가 없는 경우는 있기 때문이다. 위 천출묘에서는 1호 인골의 허리 상부에 부장되어 있던 정 한 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후술하듯이 이차장을 거행하는 목적은 일차장과 다르기 때문에 일차장 시의 부장품은 천출하는 후손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인 유적 전엽의 이차장(5기)은 두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배열하였고, 일차장과 마찬가지로 두향은 동향이다. 다인 합장의 경우에도 한 개체가 한 더미를 이루도록 재구성하되 두향은 모두 동향이다. 뼈의 재구성 방식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세부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2214호는 4인 합장인데 잔편만 남은 유아 뼈를 제외하면 3인의 재구성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다. 대별하면, 두개골을

21 두개골은 많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번식력을 증진시키거나, 사냥기술을 증진시키고, 해악에서 집을 보호하고, 신성한 남성적 지식이 전달되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정연, 앞의 논문(2024), 56쪽.

나머지 뼈 측면에 배치하는가 상면 혹은 하면에 배치하는가로 구분된다.²²

왕인 유적 중엽의 이차장(41기) 역시 두향은 동향이 되도록 집골된 뼈를 재배열하였다. 뼈의 재구성 방식은 전엽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230호 3인 이차장묘 인골 3기는 모두 배열 방식이 다르다. 23인 합장묘인 2240호(17인 남성, 나머지도 남성 가능성)는 두향이 일부 서향이나 남향이기도 하고, 배열 방식도 3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왕인 유적 후엽의 이차장(52기)은 일부만 보고되었는데, 이전 시기에 보이던 방식도 있는 반면, 두골만 있거나 원위치의 상체 위에 하지골이 놓인 새로운 방식도 있다. 이 외에 이전 시기에 비해 두개골과 지골, 분골이 어지러이 놓인 방식도 확인된다. 이 경우에도 두골들이 대체로 동쪽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 왕인 유적 이차장묘에서 보이는 몸의 재구성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다만, 일차장과 마찬가지로 두골을 동편에 두려는 의식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골은 동서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는 것이 기본 특징이다. 지골과 골반의 상하관계, 수평관계는 다양하다. 한 개체 더미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두개골 이외의 뼈들이 흐트러져 개체 구별이 불가능한 무질서형이 후엽에 여러 기 보고되었다. 그러나 모든 무덤이 보고되지 않아 전엽과 중엽에도 이런 방식이 존재했는지는 불명이다. 무질서형은 모두 5인 이상의 다인 합장이다.

왕인 유적의 사례로 볼 때, 이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적 내 일차장과 두향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개골은 대부분 나머지 부위의 최측단에 위치하거나 위에 올려진다. 극히 일부에서 최하단에 배열되기도 한다. 사지뼈와 골반 뼈는 병치되기도 하고 서로 상하에 위치하기도 한다. 왕인 후엽에는 다인 이차장에서 각 개체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흐트러진 배치를 보이는 무질서형도 여럿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두개골들과 사지골들은 대체로 각각이 모여 있는 배치를 보인다. 무질서형은 각 개체들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서로 섞일 수 있다(permeable)는 관념의 표현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 왕인 후엽에 증가하는 것이 아

22 두개골을 하면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실제 도면을 보면 사지골 아래 두개골이 있기는 하지만 동향을 위해 동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개골 하면 배치는 두개골 측면 배치를 의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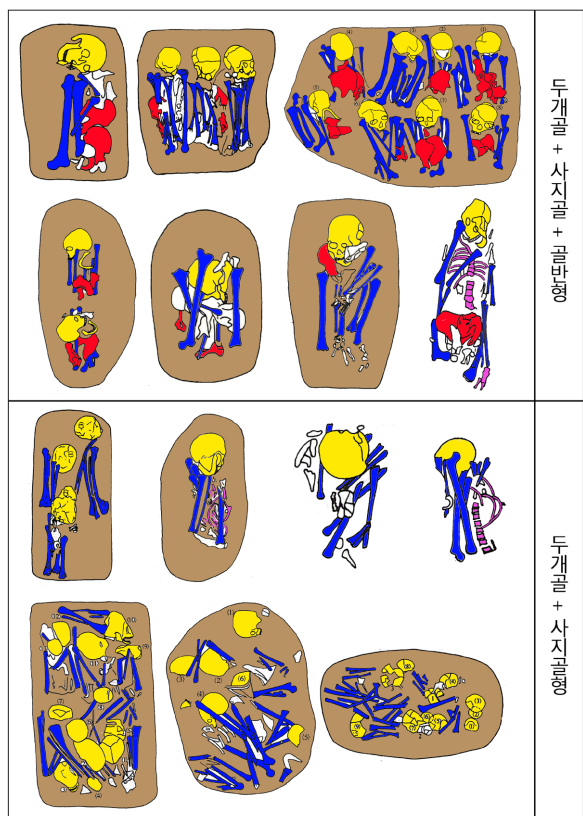


그림5-이차장묘 뼈 재구성 방식 I 류(왕인 유적, 황색:두개골, 청색:사지골, 적색: 골반)

닌가 생각된다. 초기 후엽에 노중 지역에서 이차장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왕인 이차 합장은 일차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조합(M221: 성인남성+유아/M215: 2인 이상 미성년 개체 합장/M2214·M217: 다수 성인+유아 합장/M117·M2369: 유아와 소아 합장 등)이 나타나 합장된 피장자들이 반드시 가족관계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동성 합장이 많은 노중 지역의 일반적 양상을 고려한다면,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 형태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이차장의 사례로 판단해 볼 수 있다.²³

23 余杰, 앞의 책(2019), 185쪽.

나. 다원커우 유적

노중 지역의 대표 유적인 다원커우 유적 2, 3차 발굴 무덤 46기는 조기에 해당되는데, 이 중 한 기(2003호)만이 이차장으로 확인된다. 2003호는 6인 합장인데, 남성 1인과 두개골 5기가 합장되었다. 남성 1인은 두개골+지골의 배치 상태를 보인다. 두향은 동향이다. 왕인 유적의 이차장 형식 중 Ib류(두개골+사지골형)에 해당된다(〈그림9〉의 왼쪽 첫 번째).

다. 베이첸 유적

다원커우문화 이차장묘는 18기로 다인 합장 위주이며 각 무덤은 2~20여 인을 합장하고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인골의 배열은 무질서하다(II류). 적지 않은 무덤이 두개골을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사지골 등 기타 골격을 산란해 놓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노중 지역의 왕인이나 다원커우 유적과 달리 두개골, 사지골, 골반뼈 이외의 각종 부위가 함께 재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고는 7호와 22호 무덤 두 기만 이루어졌다(〈그림8〉 참조). 7호 무덤은 성인 남성과 숙년 여성의 이성 합장묘로 두개골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각종 부위가 흐트러져 있다. 1호 인골(남성)은 두개골 주위에 기타 골격이 대체로 모여 있는데, 상완골(humerus), 척골(ulna)과 요골(radius), 골반, 대퇴골, 정강뼈, 종아리뼈, 늑골 등이다. 발치와 후두골변형이 관찰된다. 2호 인골(여성)은 설명은 없지만 도면상 1호와 유사한 골격 구성을 보인다. 멧돼지 견치제 화살촉, 석환, 골비, 마석, 조개(굴), 토기 잔편(정 구연편 위주)이 산란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골비를 제외하면 모두 파손된 것이라는 점이다. 22호 무덤은 4인 합장으로, 역시 무질서하지만 대체로 3기의 인골은 순서대로 안치되어 있다. 개체 간 분리는 명확하지 않다. 1호(숙년 남성)는 두개골 편들(후두골변형) 위에 사지골이 놓인 상태인데, 사지골은 부러진 상태이고 일부만 잔존한다. 치골 역시 일부만 잔존한다. 2호 인골(숙년 여성)은 발치 흔적이 보이며 두개골과 일부 사지골들이 잔존한다. 3호 인골(성년 여성)은 골격들이 파편화되어 흐트러져 있다. 두개골과 일부 사지골들이 잔존한다. 4호 인골(10~11세)은 1호와 섞여서 좌측 대퇴골만이 확인되었다. 무덤에서는 갈돌과 갈판이 각 1점씩 확인되었는데, 모두 파손품이다.

일부 무덤만 보고되어 전반적 양상을 알 수 없지만, 두개골과 사지골, 골반, 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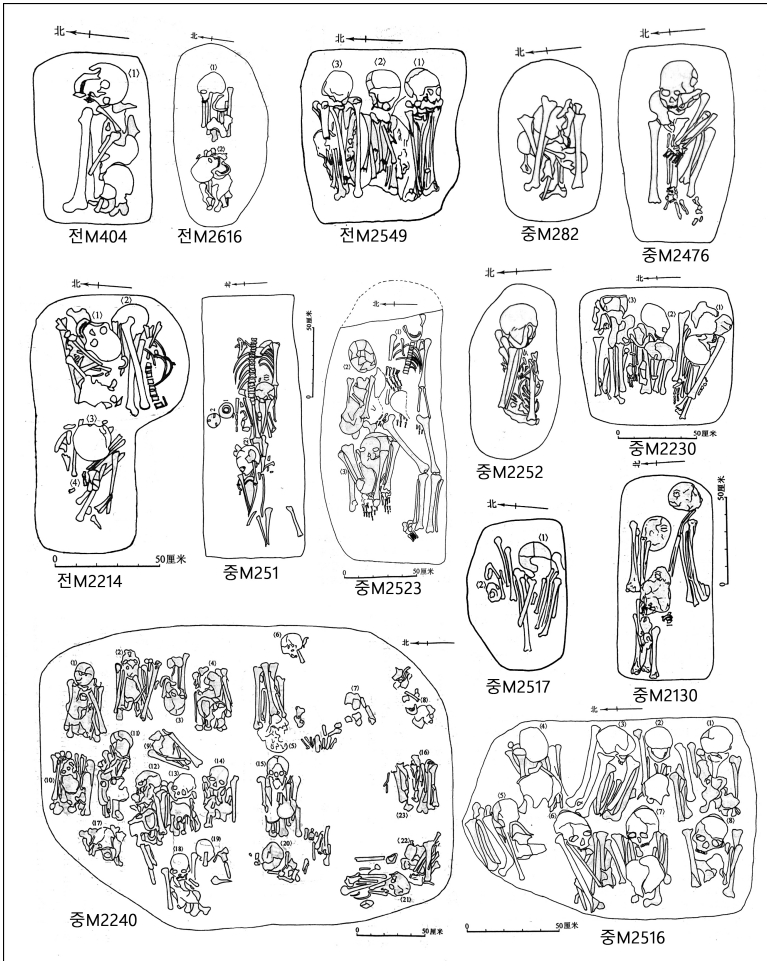


그림6-왕인 유적 전·중엽 이차장묘 집성

골(?) 등이 천출되어 재장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왕인 유적과 유사하지만,²⁴ 뼈의 재구성 방식은 완전히 상이하다. 모든 뼈들이 부러지거나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과 모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성 합장도 왕인 유적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토기, 석기, 골각기 등이 파편화되어 부장되는 것도 큰 특징이다.

24 보고서 기술에는 보이지 않지만, 도면상에서 늑골로 판단되는 뼈들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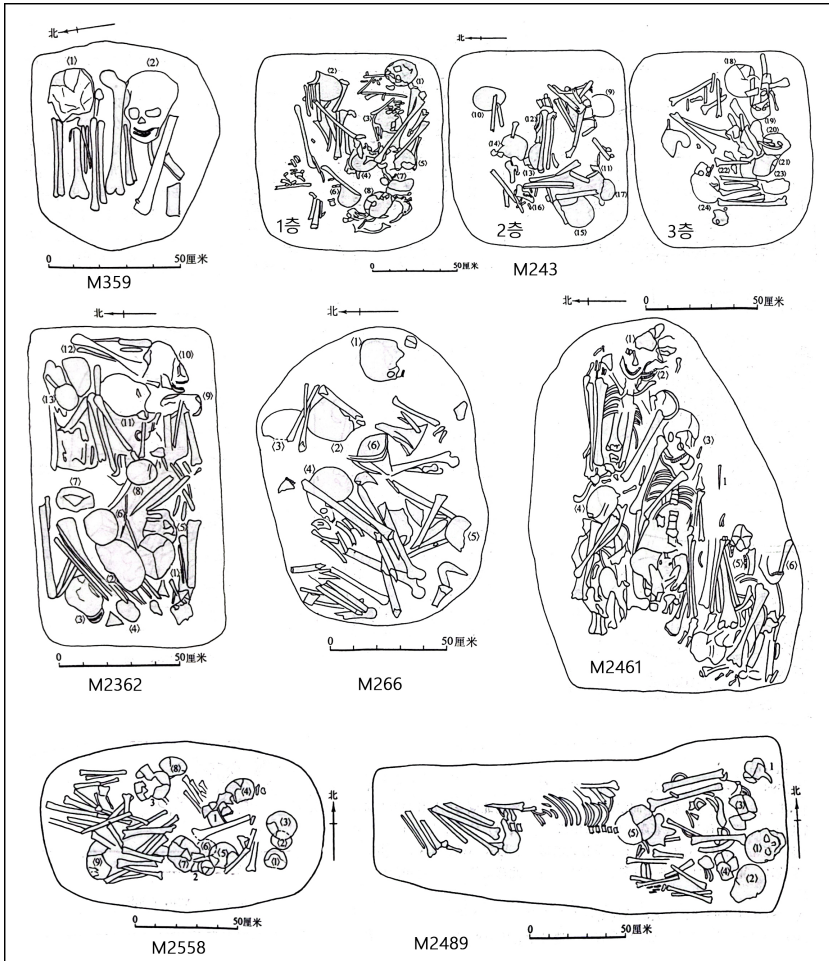


그림7-왕인 유적 후엽 이차장묘 집성

라. 기타 유적

노북 지역에서는 베이첸 이외에도 첸부샤, 우춘, 관자[傳家], 상창[尚庄], 구전두[古鎮都] 유적 등에서 소량의 이차장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그림9> 참조). 시기는 초기~만기에 걸쳐 있다. 다원커우문화 중기 첸부샤 33기 무덤 중 2기의 합장묘는 양신직지 일차장 인골과 이차장 인골의 합장이다. 단인장 24기 중에는

1기만이 이차장묘이다.²⁵ 다원커우문화 중기~만기 전반의 우촌 유적에서는 75기 무덤 중 일부에서 천출묘와 이차장묘가 보고되었다. 감정된 68기 무덤 중 32기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미성년묘장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72호는 모자 합장묘로 보고되었는데, 아동(2~3세)이 천입된 것으로 보았다. 두개골편과 일부 상완골 등이 여성(35세 전후)의 골반 부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64호는 성인 여성(45~50세)과 아동 2인(6~8세, 1.5~3세)의 합장묘인데 이 아동들 역시 천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05호는 20~25세 여성과 아동 합장묘로 아동은 두개골, 상완골, 늑골 등이 여성 인골 우측에 산란되어 있었다. 부장품은 정, 두, 단파배(單把杯) 각 1점씩이다.

관자 유적은 다원커우 중~만기 유적으로, 다수의 이차장과 천출묘가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고가 자세하지 않다. 1985년 발굴에서 150여 기(혹은 199기 혹은 202기), 1995년 발굴에서 144기가 조사되었다. 3차 발굴의 301호만이 도면이 보고되었는데, 두개골 3기와 지골이 산란된 상태로 확인되었다.²⁶ 두개골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천출묘보다는 이차장묘일 가능성이 높다. 2점의 토기[杯]가 부장되었다. 다원커우 만기 상층 유적은 17기 무덤 중 5기가 이차장이다. 2기는 인골이 없거나 극소량만 남아 천출묘의 가능성이 있다. 보고가 자세하지 않아 구체적 양상은 알 수 없다.²⁷

구전두 유적 15기 무덤 중 4기가 2차장으로 보고되었지만, 그중 2기만이 도면과 설명으로 보고되었다.²⁸ 무덤의 구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기와 만기 두 시기로 나뉜다. 6호는 4인 합장으로 동쪽에 3구가 상하로 중첩되어 있고 서쪽에 1구가 안치되었다. 두개골 등 부위 이동이 확실한 개체는 서쪽 1구와 동쪽의 최상부 1구가 이차장 혹은 비정상 사망으로 추정되었다. 이차장으로 본다면 여타

25 余杰, 앞의 책(2019), 104쪽.

26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东营市博物馆, 「山东广饶县傅家遗址的发掘」, 『考古』第9期(2002).

27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聊城地区文化局文物组·茌平县文化馆, 「山东茌平县尚庄遗址第一次发掘简报」, 『考古』第4期(1978); 山东省文物考古研究所, 「茌平尚庄新石器时代遗址」, 『考古学报』第4期(1985).

28 烟台市博物馆·栖霞牟氏庄园文物管理处, 「山东栖霞市古镇都新石器时代遗址发掘简报」, 『考古』第2期(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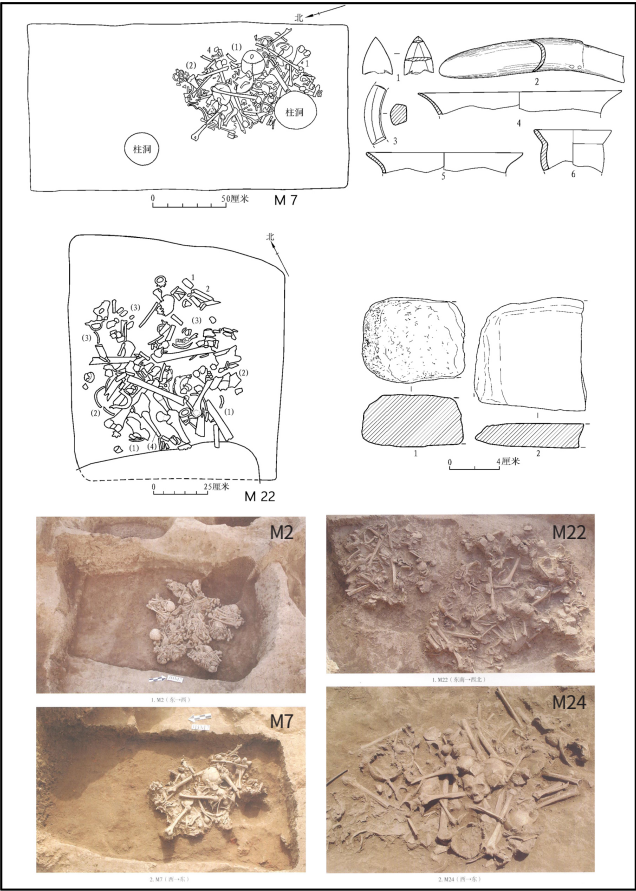


그림8-베이첸 유적 이차장묘 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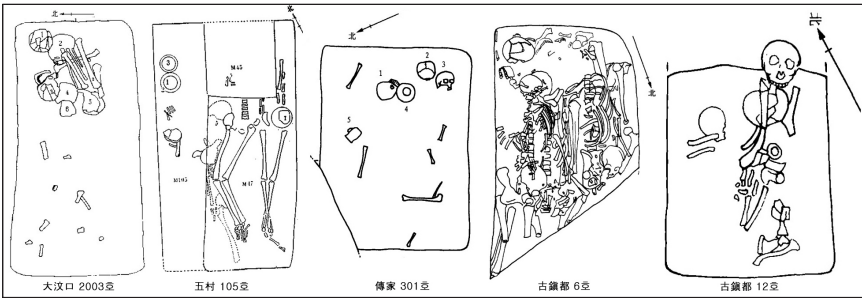


그림9-이차장묘 각종

유적의 이차장과는 사례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뼈가 제 위치에 있고 일부 부위(두개골, 일부 사지골)만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12호는 두골과 일부 척추는 제 위치이지만 사지골, 골반은 이동되었고, 남측에 아동의 일부 사지뼈가 확인되었다. 이 역시 일반적 이차장과는 차이가 나는 사례이다. 이상과 같이 노북 지역에서는 여러 유적, 복수 시기에서 복수의 이차장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일정한 패턴을 찾기는 쉽지 않다. 모두 이차장 사례로 인정한다면 2인 이상의 합장이 일반적이고 주요 부위 이외의 척추나 늑골 등이 포함된다거나, 일부 부위만이 옮겨지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부장품

다원커우문화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장품은 토기이며, 성인묘에서 미성년묘보다 부장품이 높다. 남성은 생산도구(석기), 여성은 방추차와 장신구 부장 비율이 높다. 부장량은 만기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단위 유적 내 격차가 증가해 사회 위계 형성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²⁹

조기 단계인 왕인 유적의 부장품은 전반적으로 뒤 시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왕인 유적의 부장품 및 부장 수량은 시간에 따라 <그림10>, <그림11>과 같이 변화한다. 초기 중엽부터 부장품과 부장 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종 정과 고형배가 중심 기종이며 후엽에는 두를 비롯한 부장 기종의 증가 현상 역시 관찰된다.

그런데 천출묘와 이차장묘의 부장 양상은 이러한 일반적 양상과 크게 다르다. 다음 <표5>에 보듯이, 이차장묘의 부장품은 각 시기별로 전체 평균에 크게 미달하며 유물 수량 또한 극히 적다. 전엽은 이차장묘 수량 자체가 적긴 하지만 아예 부장품이 없다. 이처럼 이차장묘는 기본적으로 부장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극히 적은 양만을 부장한다. 부장이 이루어진 이차장묘는 단인장과 합장이 모두 있으나 2인 이상의 합장묘가 우세하다. 성별은 확인된 경우는 모두 남성에 국한된다. 후엽의 두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성인 개체 무덤에 부장이 이루어진다. 부장

29 임상택, 앞의 논문(2025), 693~724쪽.

품은 장아 1, 마석 1, 골추 1, 석추 1점을 제외하면 모두 토기로, 토기는 중엽에 정 5점, 배 1점, 발 1점, 후엽에 정 9점, 발 1점, 배 2점으로 각종 정이 중심이다.

왕인 유적의 일차장묘나 합장묘와 비교할 때 이차장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조기 내내 평균 20~30%의 비율로 부장되던 고행배가 한 점도 부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³⁰ 고행배는 음주기로 다원커우문화에서 각종 정과 함께 술+음식을 상징하는 주요 부장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³¹ 이차장묘에 고행배가 전혀 부장되지 않는 점, 정 등의 토기 역시 부장률과 부장량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은 이차장이라는 장례 의식의 의미가 일반적인 일차장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을 가능성을 상징하게 한다.

공동체 성원의 사망 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을 장례(일차장묘)에서 고행배와 각종 정 등 부장품이 공헌되는 것은 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던 유족들의 음식 공헌과 애도라는 뚜렷한 목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망자들의 사망 이후 상당 시간(육탈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서로 사망 시점이 달랐을 여러 피장자를 선별하여 합장하는 이차장은,³² 대상이 되는 망자들에 대한 즉자적 애도와 공헌과는 차원이 다른 목적하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차장은 적어도 하나의 혈족 이상 또는 개별 취락 단위 이상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공동 장례를 통해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루고자 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망자의 영원한 안식(육탈 후 영혼이 저승으로 온전하게 넘어가게 하는 행위-통과의례 주기의 완성)일 수 있지만, 나아가 통과의례 주기 완성에 따른 후손들의 임무 완수와 공식적 일상 복귀, 권리와 의무, 지위, 재산 등 유무형의 사회적 자산 승계, 공동체의 통합 등 다양한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이차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차장묘가 전체 무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거나 심지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0 고행배와 다른 소형의 배는 중엽과 후엽에 각 1점과 2점 출토되었다.

31 임상택, 앞의 논문(2025), 708쪽.

32 양사오문화 다인 이차장묘의 경우, 심지어 개체 간에 약 200년의 사망 시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张弛·何嘉宁·吴小红·崔银秋·王华·张江凯·樊力·严文明, 「邓州八里岗遗址仰韶文化多人二次合葬墓M13葬仪研究」, 『考古』第2期(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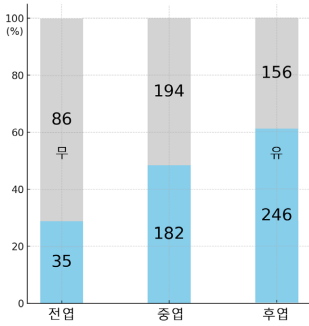


그림10-왕인 유적 부장을 변화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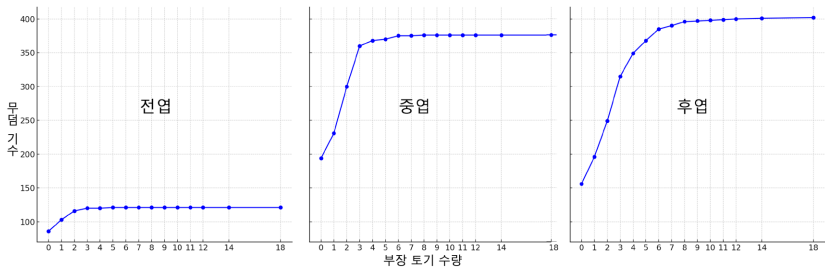


그림11-왕인 유적 부장 수량 변화³⁴

다원커우문화 이차장에서는 또다른 부장 패턴이 존재한다. 매우 적은 양의 기물을 부장하는 것은 왕인 유적 사례와 동일하지만, 완형 개체가 아닌 파편 상태의 기물을 부장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동반도 우촌 유적이 그러한 사례이다. 우촌에서는 정과 발 등의 토기, 갈돌과 갈판, 석분, 석환, 골촉 등을 부장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파편 상태이다. 인골의 일부가 재매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물 역시 한 개체의 부분만이 부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기물의 파괴를 통한 비밀상성의 표출, 망자와 생자의 분리를 나타냄과 동시에 부분이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원커우문화 묘장에서 지위나 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돼지 하악골 부장 사례가 흔히 보이는데, 이 역시 부분이 전체를 상징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몸을 포함하여 물리적 완전성을 갖춘 개체들이 부분으로 해체될

33 임상택, 앞의 논문(2025) 〈그림 3〉 전제.

34 임상택, 위의 논문(2025) 〈그림 4〉 전제.

표5-왕인 유적 유물 부장 이차장묘 및 부장품 수량

시기	유물 부장 무덤 수량(기) / 유물 총 수량(점)		이차장묘 총 수량(기)
	토기	석기, 골각기	
전엽	0	0	5
중엽	4/7	2/2	41
후엽	6/12	2/2	52

수 있다는 관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각 개체들이 파편화된 상태로 다른 개체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각 개체들은 사회적 관계를 내재한 부분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이지 외부와 단절된 완결적 존재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 개체의 완결성보다는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연결성, 개체 간 상호침투성이 중요하게 된다. 장례는 망자가 생전에 구축했던 이러한 사회적 연결을 해체하는 과정이자 망자로서의 존재 양태를 새롭게 구성하는 의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Ⅲ. 천출묘와 이차장묘에 나타난 몸의 가분성과 인격성 변형

다원커우문화 초기 단계에 유행하는 천출묘와 이차장은 인격의 측면에서 망자 자아의 유동성, 파편성, 관계적인 실체성을 보여 주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모든 장례들과 마찬가지로, 다원커우문화 천출묘와 이차장묘 역시 사회적 인격의 구성 요소들을 해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³⁵ 이 과정에서 개별 시신은

35 방주네프는 시신 자체의 파괴(화장, 조기 부패 등) 목적은 그 구성 요소들, 즉 여러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A.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0), p. 164]. Fowler에 의하면, 장례 의례는 그 인격의 구성 요소들을 해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사람은 공동체적 관계의 산물이며, 장례는 이러한 관계들을 기억하며 동시에 해체하는 의례적 장치인 것이다. 장례 절차 속의 많은 행위가 사후 세계라는 또 다른 존재 상태를 위한 이상화된 방식으로 ‘사회적 사람

천출과 이차장 행위를 통해 몸 자체가 분리된다. 천출묘를 선정하고 무덤을 여는 행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례의 과정이었고 그 과정의 핵심은 바로 육탈된 정수 이자 영혼이 잠시 머물 수 있는 뼈를 수습하는 행위였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천출 과정에서는 두개골과 사지뼈, 골반뼈가 주로 천출되고 나머지 뼈들은 제 위치에 그대로 있거나 흐트러져 방치된다. 부장품 역시 수습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거나 흐트러진다(〈표3〉 및 〈그림1~4〉 참조). 천출묘에 여전히 인골과 부장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방치되는 것은 천출 후의 무덤과 인골, 부장품은 더 이상 일차장 당시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자의 뼈와 부장품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은 천출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망자의 유해는 해체되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수습된 주요 뼈들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삶(탄생)의 장소로 옮겨진다. 즉, 이차장은 망자가 새로운 존재로 사회적 인격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의례 과정인 것이다.³⁶ 망자는 이차장을 통해 특정 가족의 부모나 형제, 자식이라는 구체적, 현실적 사회 관계에서 해체되어 특정 가계의 조상이라는 새로운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재탄생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³⁷ 망자의 뼈들은 II장에서 분석한 왕인과 다원커우 유적 사례로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열된다. 이처럼 이차장은 일차장과 달리 부장품을 매개로 망자들을 애도하고 음식을 공헌하는 등의 의례 행위보다는 망자들의 몸(이 경우는 대골격으로 구성된 뼈 자체) 자체에 대한 처리가 매우 중요한 의례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일차장 시 유족들에 의해 공헌용으로 부장되었던 부장품은 더 이상

(person)’을 변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C. Fowler, *op. cit.* (2013), pp. 1~19.

36 이와 같은 의도적인 분절은 선사 사회에서 매우 널리 행해진 사회적 실천이며 분절된 조각들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재사용된다. 천출묘에 보이는 인골의 분절화 행위(집골)와 이차장묘에 보이는 분절된 뼈의 재사용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절은 기존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형시키며 유지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J. Chapman & B. Gaydarska, *op. cit.* (2015), pp. 86~88.

37 J. Brück, “Fragmentation, Personhood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in Middle and Late Bronze Age Britain,”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Vol. 16, No. 3(2006), pp. 302~305; A. Jones, “Lives in Fragments? Personhood and the European Neolithic,”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Vol. 5, No. 2(2005), pp. 193~224; 이기성, 「일본 선사시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 『한국학』 46-4(2023), 175쪽.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고 버려진다.³⁸ 이차장묘에 부장품이 사실상 거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다인 이차장의 경우 특정 시점(예를 들어 특정 계절의 시작, 추수 후 등)을 기점으로 하여 행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³⁹ 망자의 분리 매장된 뼈는 그의 인격의 정수(혹은 영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저승이라는 별개의 세계로 망자가 온전히 존재론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하였을 것이다.⁴⁰

특징적인 것은 왕인 유적에서 보듯이, 이차장묘들이 별도의 묘역을 형성하지 않고 친출과 이차장 행위가 동일 묘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공동체 성원들에게 이차장 의식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이차장 묘역이 지속적으로 경험, 공유,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통합을 실천하고, 영속성을 추구하며, 평등성(?)을 가시화하는(부장품 거의 없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행위이자, 망자를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고 생자의 안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씨족공동체의 지속과 그 속 개별 인격들의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망자와 생자를 결속시키는 효과 역시 달성할 수 있다.

이차장은 A. 방주네프(A. Van Gennep)나 빅토 터너가 체계화한 통과의례 과정에서 리미널 단계가 끝나고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례 단계에 해당된다.⁴¹ 이를 통해 비로소 해당 공동체는 망자에 대한 의례의 주요 단계를 완료하고 일상에서 변화된 인격성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더불어 망자가 새로운 존재론적 지위를 획득한 것처럼, 생자(유족 및 공동체 구성원) 역시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사회적 지위(존장, 가장 등등)를 획득하고 인정받게 된다.⁴² 생물학적

38 다원커우 유적 2005호 친출묘에서 104점의 부장품이 그대로 방치된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39 특히 이차장묘가 많은 왕인 유적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다.

40 이차장숙을 거행하는 민족들에게 육신은 현세에 속하고 골격은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인식이나, 이차장 후 영혼은 이제 내세로 영원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何德亮·郭永胜, 「大汶口文化二次葬俗刍议」, 『海岱考古』第2輯(2007).

41 빅토 터너(저), 박근원(역), 『의례의 과정』(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42 유교식 장례에서 삼년상의 탈상 역시 일상으로의 복귀와 생자의 새로운 지위체계 정립을 위한 마지막 의식에 해당한다.

죽음과 구별되는 사회적 죽음이 근대 이전 공동체에서는 더욱 중요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계승과 상속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⁴³ 적어도 다원커우 문화에서 이차장이라는 장례 의식은 주기적으로 공동체의 이전 구성원이었던 망자들을 한데 모아 사회적 죽음을 확인하고 조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례 절차라고 볼 수도 있다.⁴⁴

그러나 다원커우문화 무덤에서 이차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차장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이차장이 비교적 유행하는 노중 지역의 경우도 거의 초기에만 국한된다. 이런 점을 볼 때, 주기적으로 이차장이 행해지면서 결국 다른 변수가 없다면 모든 일차장이 이차장화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이차장이 부정기적으로 행해졌고 그 대상이 되는 피장자(천출묘)가 특정 기준(가족, 가계 등)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즉 이차장이 유행했던 노중 지역 초기 단계에도 기본적으로는 단인 일차장이 보편적이고, 특정한 계기가 있을 경우 이차장이 행해졌던 것이 실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중기 이후가 되면 급감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천출묘와 이차장이 모든 장례 행위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차장의 관념 체계가 당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일차장과 이차장의 혼재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위 관념의 통일성·일관성과 하위 실행의 자율성, 전체와 부분의 조화라는 체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당대 공동체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주관의 통일성과 일관성 속에서 개별 행위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와 부분의 조화로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었을 가능성

43 S. Gillespie, "Personhood, Agency, and Mortuary Ritual: A Case Study from the Ancient May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Vol. 20(2001), pp. 73~112.

44 Graham은 로마 공화정의 os resectum 의례를 분석하면서, 죽은 자는 생물학적 죽음만으로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례(suffitio)와 반복적인 기억의 실천을 거쳐 비로소 조상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였다. Emma-Jayne Graham, "From Fragments to Ancestors: Re-defining the Role of Os Resectum in Rituals of Purification and Commemoration in Republican Rome," in Maureen Carroll & Jane Rempel(eds.), *Living through the Dead: Burial and Commemoration in the Classical World*(Oxford: Oxbow Books, 2011), pp. 105~106.

이다. 세상은 수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연결하는 관계 방식의 다양성을 통해 인간, 사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들은 매 공동체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인식한다.

이렇게 보면 이차장묘는 소수라 하더라도 당대 사회에서 이러한 관념 체계 속에서 부분으로서 엄연하게 존재하는 장법이였다. 실제로 왕인 유적에서는 전체 무덤 인골 수의 30%를 초과하는 중요한 장법이다. 이차장 방식의 지역과 시간에 따른 다양성 역시 공동체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인식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제라도 천출의 가능성이 있는 일차장묘와 이차장묘의 공존은 신체의 분리,⁴⁵ 기물의 파편화와 부분의 재조합 가능성처럼 장례라는 사회적 행위 역시 복수의 방식(일차장, 천출, 이차장)과 장법(양와신전장, 굴지장, 부신장, 집골 이차장의 다양한 방식), 피장자의 다양한 구성(단인장, 2인 합장, 다인 합장, 동성 합장, 이성 합장, 성인 합장, 성인+미성년 합장 등⁴⁶) 등 여러 분리된 부분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구성되는 인격성은 반드시 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단일 관념일 필요는 없다. C. 파올러(C. Fowler)는 이를 다중모드적(multi modal) 인격성으로 정리한 바 있다.⁴⁷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왜 모든 일차장들이 이차장화 하지 않았는지, 이차장이 전체 중 왜 소수에 불과한지는 적절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실천으로서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통과의례가 분리와 전이, 변형, 그리고 통합이라는 큰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장례라는 중요한 통과의례 역시 마찬가지이다. 분리는 흔히 언급되는 유족과 망자의 분리, 공동체와 망자의 분리, 이승과 저승의 분리라는 ‘죽음’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뿐 아니라 망자 개체의 분리(뼈와 살의 분리, 육신과 영혼의 분리, 천출 시 개체 부위의 분리, 천출 시 개체와 부장품의 분리)까지 논리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장례라는

45 尉迟寺 무덤에서는 종종 신체를 절단(주로 수골과 족골)하여 매장(割体葬仪)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 陶冶强, 「尉迟寺遗址大汶口文化晚期葬俗刍议」, 『四川文物』 第3期(2009).

46 이차 합장의 경우는 반드시 성인 피장자가 포함된다는 분석 결과도 주목된다. 余杰, 앞의 책(2019), 177쪽.

47 C. Fowler, *op. cit.* (2016), pp. 406~408.

의례적 시간과 일상적 시간의 분리는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기본 논리이다.

전이와 변형의 과정(리미널)은 망자와 유족을 포함하는 생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태가 변화되는 단계이다. 망자는 이제 저승 세계의 구성원이 될 준비를 마치게 되며, 생자들은 장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위의 획득과 사회적 관계 재구축을 위한 실천을 행하게 된다. 망자와 생자 공히 인격성의 변형을 겪게 되는 것이다.

통합 역시 여러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장례 절차를 통한 개별 혹은 복수 공동체의 통합(대규모 이차장의 경우), 다인 이차장을 통한 망자들의 통합, 정수를 담은 골격 재배치를 통한 영혼의 통합(이차장), 망자의 조상으로의 통합, 조상과 후손의 통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통합과정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사회와 망자들 사회 각자의 재탄생이자 조상과 후손 관계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두 사회(이승과 저승)의 통합과 재탄생이라 해석할 수 있다.⁴⁸ 일차장과 천출, 이차장은 다양한 장례 과정의 단계로서, 그리고 각각이 최종 단계로서 분리와 변형, 통합을 통한 망자의 조상 되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다원커우문화의 천출묘와 이차장묘는 단순한 매장 방식이 아니라, 몸의 분리와 재구성을 통해 인간 존재를 새롭게 정의한 의례적 실천이었다. 천출은 망자의 신체를 해체함으로써 생자와 사자의 관계 재설정을 개시하고, 이차장은 두개골을 위시한 주요 부위를 재배열하여 ‘조상 되기’라는 사회적 전환을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망자의 몸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관계를 매개하는 구성 요소로 작동하였다. 두개골과 주요 뼈의 재배치는 존재의 완전성이 아니라

48 마다가스카르 메리나 죽은 이차장을 통해 망자를 남성 조상의 혈통을 공유하는 집단의 무덤에 합류시킴으로써 남성 조상 정수가 보존되고, 이 정수는 정액(semen)에 비유되어 계보의 지속적 재생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긴다. 가매장, 천출, 이차장의 일련의 과정은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분리하고 각각을 생사 순환의 적절한 영역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이다. C. Fowler, *op. cit.* (2013), pp. 1~19.

부분과 관계의 연결성, 곧 사회적 통합을 상징하였다. 따라서 다원커우문화의 천출과 이차장은 죽음을 종결이 아닌 관계와 인격성의 재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 준다. 이는 고대 동북아 사회가 지닌 몸과 사물의 가분성과 침투가능성의 세계관, 생자와 조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식 구조를 잘 보여 준다.

참고문헌

1. 논저

- 빅토 터너(저), 박근원(역), 『의례의 과정』,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 우정연, 「남한 지역 청동기시대 화장묘 형식 재검토」, 『한국고고학보』 2022-4, 2022, 761~791쪽.
- 우정연,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무덤과 몸의 가분성(dividuality)」, 『한국학』 173, 2023, 7~45쪽.
- 우정연, 「남한 지역 청동기시대 인골과 무덤을 통해 본 젠더와 삶의 재생산」, 『한국상고사학보』 125, 2024, 41~70쪽.
- 이기성, 「일본 선사시대의 무덤과 몸에 대한 인식」, 『한국학』 46-4, 2023, 137~179쪽.
- 임상택, 「중국 신석기시대 조사와 연구의 최신 동향: 최근 5년간(2017~2021) “全國10大考古新發現” 선정 신석기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박물관연구논집』 28, 2022, 105~143쪽.
- 임상택, 「영속성과 위계 협상의 장, 다원커우문화(大汶口文化) 부장의례」, 『한국고고학보』 2025-3, 2025, 693~724쪽.
- 하대룡, 「고총기(高塚期) 백제와 신라 엘리트의 몸과 장례 비교: 적석총과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한국학』 173, 2023, 87~133쪽.
- 陶冶强, 「尉迟寺遗址大汶口文化晚期葬俗刍议」, 『四川文物』 第3期, 2009, 41~44쪽.
- 樂豐貴, 「大汶口文化的分期与類型」, 『海岱地區考古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7, 69~113쪽.
- 山東大學历史文化学院考古学系·青島市文物保護考古研究所·即墨市博物館, 「山東即墨市北阡遗址2007年发掘简报」, 『考古』 第11期, 2011, 3~23쪽.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莒平尚庄新石器时代遗址」, 『考古学报』 第4期, 1985, 465~513쪽.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東營市博物館, 「山東廣饒縣傅家遗址的发掘」, 『考古』 第9期, 2002, 36~44쪽.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聊城地区文化局文物组·茌平县文化馆, 「山东茌平县尚庄遗址第一次发掘简报」, 『考古』 第4期, 1978, 234~243쪽.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廣饒縣博物館, 「廣饒縣五村遗址发掘报告」, 『海岱考古』 第一辑,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89, 61~123쪽.
- 山東省文物管理處·齊南市博物館, 『大汶口』, 北京: 文物出版社, 1974.
- 山東省文物管理處·齊南市博物館, 『大汶口續集』, 北京: 科學出版社, 1997.
- 余杰, 『大汶口文化墓葬研究』, 武漢: 武漢大學博士学位论文, 2019.

- 烟台市博物馆·栖霞牟氏庄园文物管理处,「山东栖霞市古镇都新石器时代遗址发掘简报」,『考古』第2期,2008,7~22页。
- 王思礼,「山东安邱景芝镇新石器时代墓葬发掘」,『考古学报』第4期,1959,17~29页。
- 张弛·何嘉宁·吴小红·崔银秋·王华·张江凯·樊力·严文明,「邓州八里岗遗址仰韶文化多人二次合葬墓M13葬仪研究」,『考古』第2期,2018,79~87页。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王因』,北京:科學出版社,2000。
- 昌潍地区文物组·寿光市博物馆,「山东寿光市后胡营遗址试掘简报」,『考古』第9期,2005,7~15页。
- 何德亮·郭永胜,「大汶口文化二次葬俗刍议」,『海岱考古』第2輯,2007,446~464页。
- Brück, J., "Fragmentation, Personhood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in Middle and Late Bronze Age Britain,"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Vol. 16, No. 3, 2006, pp. 297~315.
- Chapman, J. & Gaydarska, B., "Fragmentation in Archaeology: Sorting through the Pieces," *Stratum Plus*, Vol. 2, 2015, pp. 85~110.
- Fowler, C., "Identities in Transformation," in Liv Nilsson Stutz & Sarah Tarlow(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1~19.
- Fowler, C., "Relational Personhood Revisited,"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Vol. 26, No. 3, 2016, pp. 397~412.
- Gillespie, S., "Personhood, Agency, and Mortuary Ritual: A Case Study From the Ancient May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Vol. 20, 2001, pp. 73~112.
- Graham, Emma-Jayne, "From Fragments to Ancestors: Re-defining the Role of Os Resectum in Rituals of Purification and Commemoration in Republican Rome," in Maureen Carroll & Jane Rempel(eds.), *Living through the Dead: Burial and Commemoration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bow Books, 2011, pp. 91~109.
- Jones, A., "Lives in Fragments? Personhood and the European Neolithic,"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Vol. 5, No. 2, 2005, pp. 193~224.
- Van Gennep, A., *The Rites of Pass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0.

Reference

Books and Journal Articles

- Changwei Regional Cultural Relics Team & Shouguang Museum, "Preliminary Excavation Report of the Houhuying Site in Shouguang, Shandong," *Kaogu*, Vol. 9, 2005, pp. 7-15.
- Department of Archaeology, School of History and Culture, Shandong University, Qingdao Municip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and Jimo Museum, "2007 Excavation Report of the Beiqian Site in Jimo, Shandong," *Kaogu*, Vol. 11, 2011, pp. 3-23.
- Ha, Daeryong, "A Comparison of the Body and Mortuary Practices among Baekje and Silla Elites during the High-Mound Tomb Period: Focusing on Stone-mound Tombs and Stone-piled Wooden Chamber Tombs," *Korean Studies*, Vol. 173, 2023, pp. 87-133.
- He, Deliang & Guo, Yongsheng, "A Preliminary Discussion of Secondary Burial Customs in the Dawenkou Culture," in *Haidai Archaeology*, Vol. 2, Jinan: Shandong University Press, 2007, pp. 446-464.
- Institute of Archaeology,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Wangyin in Shandong*, Beijing: Science Press, 2000.
- Lee, Giseong, "Burials and Perceptions of the Body in Prehistoric Japan," *Korean Studies*, Vol. 173, 2023, pp. 137-179.
- Lim, Sangtaek, "Recent Trends i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and Research on the Chinese Neolithic: Focusing on Neolithic Sites Selected as the 'Top Ten New Archaeological Discoveries in China' during the Last Five Years (2017-2021)," *Journal of Museum Studies*, Vol. 28, 2022, pp. 105-143.
- Lim, Sangtaek, "A Stage for Negotiating Permanence and Hierarchy: Mortuary Rituals in the Dawenkou Culture," *Journal of Korean Archaeology*, Vol. 2025, No. 3, 2025, pp. 693-724.
- Luan, Fengshi, "The Chronology and Typology of the Dawenkou Culture," in *Archaeological Studies of the Haidai Region*, Jinan: Shandong University Press, 1997, pp. 69-113.
- Shandong Provincial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 Jinan Museum, *Dawenkou*, Beijing: Cultural Relics Publishing House, 1974.
- Shandong Provincial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 Jinan Museum, *Dawenkou: Supplementary Volume*, Beijing: Science Press, 1997.
- Shandong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 Dongying Museum, "Excavation of the Fujia Site in Guangrao County, Shandong," *Kaogu*, Vol. 9, 2002, pp. 36-44.
- Shandong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 Guangrao County Museum, "Excavation Report of the Wucun Site in Guangrao County," in *Haidai Archaeology*, Vol. 1, Jinan: Shandong University Press, 1989, pp. 61-123.
- Shandong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The Neolithic Shangzhuang Site in Chiping," *Kaogu Xuebao*, Vol. 4, 1985, pp. 465-513.
- Shandong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Liaocheng Regional Bureau of Culture, Cultural Relics Division, and Chiping County Cultural Center, "Preliminary Excavation Report of the Shangzhuang Site in Chiping County, Shandong," *Kaogu*, Vol. 4, 1978, pp. 234-243.
- Tao, Zhiqiang, "A Preliminary Discussion of Late Dawenkou Culture Burial Customs at the Yuchisi Site," *Sichuan Cultural Relics*, Vol. 3, 2009, pp. 41-44.

Turner, Victo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translated by Geunwon Park, Seoul: Korea Institute for Psychotherapy, 2005.

Wang, Sili, "Excavation of Neolithic Burials at Jingzhi Town, Anqiu, Shandong," *Kaogu Xuebao*, Vol. 4, 1959, pp. 17-29.

Woo, Jeongyeon, "A Reexamination of the Types of Bronze Age Cremation Burial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rchaeology*, Vol. 2022, No. 4, pp. 761-791.

Woo, Jeongyeon, "Neolithic and Bronze Age Burials and Bodily Dividuality in South Korea," *Korean Studies*, Vol. 173, 2023, pp. 7-45.

Woo, Jeongyeon, "Gender and the Reproduction of Life as Seen through Human Skeletal Remains and Burials of the Bronze Age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ical Society*, Vol. 125, 2024, pp. 41-70.

Yantai Museum & Qixia Mou Family Manor Cultural Relics Administration, "Preliminary Excavation Report of the Neolithic Guzhen Site in Qixia, Shandong," *Kaogu*, Vol. 2, 2008, pp. 7-22.

Yu, Jie, *A Study of Dawenkou Culture Burials*, Ph.D. Dissertation, Wuhan: Wuhan University, 2019.

Zhang, Chi, He, Jianing, Wu, Xiaohong, Cui, Yinqiu, Wang, Hua, Zhang, Jiangkai, Fan, Li, and Yan, Wenming, "A Study of the Burial Ritual of Multiple Secondary Burial M13 of the Yangshao Culture at the Baligang Site, Dengzhou," *Kaogu*, Vol. 2, 2018, pp. 79-87.

Table

Table 1. A Compilation of Exhumation Burials and Secondary Burials in the Dawenkou Culture
Table 2. Numbers of Exhumation Burials and Secondary Burials at the Wangyin Site (Percentage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Burials)
Table 3. Summary of Major Exhumation Burials at the Wangyin Site
Table 4. Classification of Skeletal Reconstruction Patterns in Secondary Burials at the Wangyin Site
Table 5. Secondary Burials with Grave Goods and the Number of Burial Goods at the Wangyin Site

Figure

- Figure 1. Compilation of Exhumation Burials From the Wangyin Site (Burial Goods Highlighted in Yellow)
- Figure 2. Compilation of Exhumation Burials From the Dawenkou Site
- Figure 3. Exhumation Burial and Associated Burial Goods at the Beiqian Site
- Figure 4. Various Types of Exhumation Burials in Northern Shandong (Surviving Skeletal Elements Highlighted in Blue)
- Figure 5. Type I Pattern of Skeletal Reconstruction in Secondary Burials at the Wangyin Site (Yellow: Skull; Blue: Limb Bones; Red: Pelvis)

Figure 6. Compilation of Early and Middle Dawenkou Phase Secondary Burials at the Wangyin Site

Figure 7. Compilation of Late Dawenkou Phase Secondary Burials at the Wangyin Site

Figure 8. Compilation of Secondary Burials at the Beiqian Site

Figure 9. Compilation of Secondary Burials from Multiple Dawenkou Culture Sites

Figure 10. Changes in the Frequency of Burial Goods at the Wangyin Site

Figure 11. Changes in the Number of Burial Goods at the Wangyin Site